

TV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30 30모닝 A1부	00 KBS 뉴스광장	00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10 아침경제 골든타임	50 인간극장	00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기획 킷모닝 대한민국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 (모두 다 김치)	30 KBC 모닝와이드
10 30모닝 A2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10 중계방송 유엔총회기조연설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15 여기는 인천 <수영 남 자유형 100m 예선 (박태환)> 30 KBS 뉴스 40 박근혜대통령 UN총회 기조연설	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박근혜대통령 UN총회 기조연설>	10 인천 2014 <수영>
10 시사 인사이드	00 여기는 인천 <수영 남 자유형 100m 예선 외 양궁 컴파운드 남녀 단체 및 개인 예선>	50 지구촌 뉴스	00 기본 좋은 날	30 인천 2014 특집 SBS 뉴스
20 내조의 여왕(재)		15 사랑의 가족 45 수목드라마 <아이언맨>(재)	15 경제매거진 M 스페셜	00 SBS 생활경제 30 KBC 생활뉴스 50 인천 2014 특집 SBS 12 뉴스
3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55 생활의 발견(재)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특별기획 <마마>(재)	20 드라마 스페셜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재)
30 뉴스 특급	00 스퀴트(재) 50 제19회 KBS 119상 시상식	50 여기는 인천 <양궁 컴파운드 남녀 단체 준결 및 개인 8강전>	35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양궁 남녀 컴파운드 단체준결/개인 8강> <핸드볼 남 8강 조별리그>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40 직언직설	00 KBS 뉴스 10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인천 2014 특집 SBS 뉴스 10 인천 2014 <베드민턴>
55 정용관의 시사방법	00 KBS 뉴스 10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최강 탐블레이트 30 꾸러기 탐구 생활
55 하종대의 쾌도난마	00 시사진단 55 토티 생활 체조(재)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인천 2014 <팬싱, 수영, 축구>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특집 <나는 국가대표다> 20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남자 예선, 대한민국 : 요르단>	30 여기는 인천 <남 자유형 100m 결승 (박태환)> -여 배구 예선, 대한민국 : 일본>	40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 축구 16강전> <기계제 조종복 결승>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0 모쿠 드라마 <싸인>(재)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KBS 파노라마 50 스포터	00 수목 드라마 <아이언맨>	00 MBC 뉴스데스크 30 수목미니시리즈 <내 생애 봄날>	00 인천 2014 특집 SBS 뉴스 15 KBC 8 뉴스 30 드라마 스페셜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00 웰컴 투 시월드	00 KBS 뉴스라인 40 다시보는 불멸의 이순신	10 해피 투게더	40 특선다큐멘터리 <하얼로로 만나는 중국>	45 인천 2014 특집 나이트라인
20 카톡쇼 S ①:30 광화문 콘서트(재)	50 네트워킹 문화특선 이현철의 울긋 유적 ①:40 생활의 발견	30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①:30 리얼 체험 세상을 본다	35 MBC 뉴스 24 55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15 인천 2014 하이라이트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35 따개비 루	14:00 시계마을 티키토	17:30 로보카 폴리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09:40 부모 <생활백과>	14:15 치료와 친구들	17:45 뽀롱뽀롱 뽀로로
06:10 세계의 눈 <특선>(재)	10:10 세계경문록 아틀라스	14:30 미술탐험대	18:00 생방송 투데이! 보너스!
07:00 시계마을 티키토(재)	10:50 최고의 요리 비결	14:45 미앤미아로봇	19:00 콘
07:15 콘(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00 꼬마 철학자 추고	19:30 EBS 뉴스
07:30 책과 땅(재)	<탄자니아>(재)	15:15 어린 왕자	19:50 달라졌어요(재)
07:45 로보카 폴리(재)	12:00 EBS 정오 뉴스	15:30 정글북	20:40 다큐 오늘
08:00 일동영 유치원	12:10 일동영 유치원	15:45 꼬마와 친구들	20:50 세계테마기행 <분디야, 동티모르>
08:20 뽀롱뽀롱 뽀로로(재)	<행복한 교육세상>	16:00 당동영 유치원	21:30 한국기행 <내포기행>
08:35 방귀대장 뽀롱이	13:05 역사채널E	16:20 버블버블 마린	21:50 EBS 스포츠 프로젝트
08:50 How-만들어 볼까요	13:10 부모 광청(재)	16:45 How-만들어 볼까요(재)	22:45 다문화 고부열전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3:40 내 이름은 펠기	17:00 방귀대장 뽀롱이(재)	23:35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09:2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3:50 뛰뛰 뽀롱 울리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4:05 역사채널 E(재)

EBS플러스1

00:00 703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한국사>	11:40 박봉의 이슈로 만나는 경제 <한국지리>
00:50 " <영어-독해>	12:15 703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영어-듣기>
01:40 수능특강 light <한국지리>	13:05 " <수학 I B형>
02:30 " <영어-듣기>	14:00 " <국어 B형>
03:20 뉴 탐스런 <한국지리>	14:00 " <물리 II>
04:10 " <과학>	14:50 " <화학 II>
05:00 " <한국사(해)>(재)	15:40 " <생명과학 II>
05:50 2013 포스 <미적분과 통계 기본>	16:30 " <지구과학 II>
06:40 압축탐스런 <지구과학 I>	17:20 " <사회문화>
07:30 2014 포스 <문학 II>	18:10 " <경제>
08:20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재)	19:00 " <영어>
09:10 " <영어-듣기>(재)	20:00 EBS-N제 <국어 B형>(재)
10:00 뉴 탐스런 <과학>(재)	21:00 " <수학 B형>
10:50 2013 포스	22:00 인터넷 수능 <문학B형>

EBS플러스2

07:00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20 중간학업 성취도평가 대비특강
07:30 실험관찰 비법 노트 (5-2)	<과학 3-2>
08:00 전산세무회계 시험대비 강좌	15:50 " <과학 4-2>
08:30 매경 TEST 시험대비 강좌	16:20 " <과학 5-2>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16:50 " <과학 6-2>
09:10 TV 중학 <국어 ①②>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수학집중 6-2>(재)
09:50 " <영어 1>	
10:30 " <도덕 2>	18:00 TV 중학 <역사(해)>
11:10 " <국어 ③④>	18:40 " <사회 3>
11:50 " <영어 2>	19:20 필독 중학 한국사(재)
12:30 중학 중간-기말 시험대비 문제 풀이 <사회1-2>	20:00 EBS 인문학 특강 <수학시리즈>
13:10 " <과학1-2>	21:40 한국기행 <과학 3-2>
13:50 " <과학2-2>	22:00 등급 산공 <과학 3-2>
14:30 " <역사 1-2>	22:40 중학e포스 영어독해<주제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5일(음 9월 2일 己亥)

子	36년생 확신을 갖고 임해도 되나, 48년생 면모에 따라서 비중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60년생 정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 72년생 성과를 거두리라. 84년생 기본적인 사실에 입각하라. 행운의 숫자 : 74, 83	午	42년생 현대대로 지탱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54년생 애매하다면 실행할 필요 없다. 66년생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차원이 달라질 것이다. 78년생 유가적 기능을 하면서 발전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5, 29
丑	37년생 망심 한다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49년생 요령이 있어야 능률적이다. 61년생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73년생 한 곳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85년생 복되리라. 행운의 숫자 : 48, 62	未	43년생 기회가 도래하고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하자. 55년생 의도했던 바와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67년생 계속적이거나 실패를 피하게 된다. 79년생 관리는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하여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7, 66
寅	38년생 신뢰하고 있더라도 다시 한 번 살펴본다면 분명히 흠결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50년생 조건에 따른 변수가 있다. 62년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74년생 끊고 맺음을 잘 하자. 행운의 숫자 : 63, 06	申	44년생 만남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56년생 손쉬운 방법으로 처리해야 손실이 없을 것이다. 68년생 격식에 맞아야만 빛도 발하는 법이다. 80년생 일상을 내려놓고 파안대소하게 될 일이었다. 행운의 숫자 : 38, 02
卯	39년생 착수만 한다면 손조작 진행될 것이니 임해도 된다. 51년생 중차대한 실황을 포착하게 되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63년생 원칙은 알고 있되 융통성 있게 적용하라. 75년생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15, 34	酉	45년생 추진하다 보면 스스로 의문점이 풀릴 것이다. 57년생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실행하는 것이 이익이다. 69년생 단타 때 돈을 지어놓는 것이 순탄하다. 81년생 구체적인 아이디어 실행력을 갖는다. 행운의 숫자 : 11, 39
辰	40년생 확실히 지속하고 있는 것이 실용적이다. 52년생 가까스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64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새로운 요인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76년생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21, 16	戌	46년생 예상했던 대로 이루어 질 것이나, 58년생 가끔씩 어려운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이 순조로울 것이다. 70년생 효과를 보지 못 하리라. 82년생 자신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어 흡족하겠다. 행운의 숫자 : 55, 88
巳	41년생 형식적인 절차는 사족일 수 있다. 53년생 완전하지 않다면 오히려 위험한 지경에 이른다. 65년생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속출하리라. 77년생 뜻은 있으나 동력이 약한 이치이다. 행운의 숫자 : 28, 35	亥	47년생 생각에만 머무르면 아무런 쓸모가 없나, 59년생 상대의 조언을 가볍게 여긴다면 난감해질 것이다. 71년생 직책을 떨어 버리지 못 한다면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83년생 심대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2, 26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시나리오에 반해

베드신 고민도 안했죠”

영화 마담 뱅딕

욕망에 눈먼 남자 심학규 역 정우성

“베드신이 있거나 역할이 아파라는 점은 전혀 고민거리가 아니었어요.” 새 영화 ‘마담 뱅딕’에서 낯선 모습을 보여준 배우 정우성(41)의 이야기다. 영화는 효의 상징인 옛 고전 심정전을 오늘날로 가져와 치정 멜로로 재탄생했다. 23일 오후 서울 성동구 CGV왕십리에서 열린 ‘마담 뱅딕’ 시사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만난 정우성(41)은 “시나리오가 자꾸 끌렸다”고 밝혔다. “시나리오가 정말 기발했어요. 심정전에서 뱅딕과 심학규 사랑에 초점을 뒀던 대목으로 재해석했다는 것이 시나리오를 읽는 내내 흥미진진했어요. 제가 심학규를 연기하면 이런 감정들을 맞출 수 있겠구나, 이런 표현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제 앞의 것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런 시나리오를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욕망대로 움직이는 나쁜 남자인 심학규 교수로 분한 정우성은 “물론 제 나이에 탐욕스러움과 방탕함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인데 굳이 더 나이 든 이후로 미룰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다. 영화는 추문에 휩싸여 소도시로 좌천된 대학교수 심학규가 그곳에서 만난 스무 살 처녀 덕이(이수 분)를 뜨겁게 사랑한 다음 차갑게 배신하는 데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한다. 8년이 흐른 뒤 심학규는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지만 점점 시력 잃는다. 이때 이름을 세정으로 바꾼 채 심학규 앞에 나타난 덕이는 복수를 위해 심학규와 그의 딸 정이를 점점 파멸로 몰아넣을 준비를 한다. 영화는 다소 충격적인 복수극을 펼친다. 정우성은 “심학규가 처하는 상황이 연기하면서도 처음 겪는 것이었고 한 인간으로서도 공감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심학규를 잘 이해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우성은 영화에서 이수(24)와 함께 수위 높은 베드신을 여러 차례 선보인다. 첫 주연을 맡은 이수는 “처음 제의를 받았을 때 제목만 보고 코미디인줄 알았다”면서 “영화가 순수한 사랑과 지속적인 사랑을 강렬하게 표현해서 끌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덕이의 감정 폭이 다양하고 넓어서 정말 도전해보고 싶었다”면서 “배울 점도 많고 전혀 후회가 없다”고 덧붙였다. 영화는 다음달 2일 개봉한다.

“친엄마·새엄마·시엄마 결혼 생각 없어졌어요”

종영 ‘엄마의 정원’ 서윤주 역 정유미

“일일극 한편을 끝낸 것인데 미니시리즈 세 편 정도는 찍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체력에서는 안 빠지는 데 이번에는 초반에 쓰러지기가 했으니까요. 한 인물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려보긴 처음입니다.” 정유미(30)는 다시 생각해도 ‘파란만장했다’는 듯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말 그대로였다. 최근 시청률 15.1%로 종영한 MBC TV 일일극 ‘엄마의 정원’의 주인공 서윤주의 인생은 평범하지 않았다. 낳고는 버린 친엄마, 길러주긴 했지만 정이 없었던 새엄마, 결국은 자신을 이혼으로 내몬 악덕 시엄마 등 세 엄마에 둘러싸인 서윤주의 인생은 복잡했다. 불임으로 판정되자 대리모까지 거론되는 수모를 겪었고, 우여곡절 끝에 이혼한 전 남편과 재결합한 후에는 임업을 선택한다. 그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한 작품 안에서 했다. 그런데 모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라 이해하고 납득하며 연기하는 게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다. 일단 출생의 비밀이 나오고 악덕 시엄마가 등장하는 것으로 ‘막장 드라마’의 전형적인 요소를 갖춘 ‘엄마의 정원’은 서윤주가 구박을 받을수록, 고통을 받을수록 시청률이 상승했고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그는 호흡을 맞춘 선배 연기자 고두심, 나영희, 김창숙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정말 선배님들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나영희 엄마와는 ‘육담방 왕세자’ 때 모녀간으로 호흡을 맞춘 후 이번이 두 번



째라 많이 친해졌어요. 정말 편하게 대해주세요. 고두심 엄마는 존경하게 됐어요. 카메라가 잘 잡을 때도 상대적으로 본인 부분을 연기할 때보다 더 감정을 잘 잡아주셨어요. 인간적으로도 배운 게 정말 많고요. 어떻게 나이가 들어야하는지 고두심 엄마를 보며 느꼈어요. 시엄마를 연기한 김창숙 엄마와는 연기적으로 제일 강도 높게 부딪쳐서 그런지 가장 많이 가까워졌어요. 촬영 끝나니까 ‘우리 이제 즐겁게 살자’고 하시며 와인 사주시라며 놀러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서윤주가 겪은 모진 시집살이는 미혼녀들에게 결혼에 대한 공포감마저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재미있는 게 저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결혼에 대한 생각마저 없어졌는데 일일극에 출연하고, 작품이 인기를 얻다보니 이 드라마를 하면서 저의 엄마를 통해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는 연락이 많이 왔어요.(웃음) 확실히 어른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에 출연하니 피드백이 다르더라고요.” 연예계에는 두 명의 배우 정유미가 있다. ‘다른 정유미’는 현재 KBS 2TV 월화극 ‘연애의 발견’에 출연 중이다. 둘 다 나란히 2004년에 데뷔했고 나이도 한살 차이로 비슷하다. 자연히 여러 면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캐스팅, 광고 섭외, 기사 등 연락이 잘못 오거나 오류가 종종 생겨요. 심지어 어떤 기사는 우리 두 사람의 사진을 혼용하면서 ‘얼굴이 자꾸 바뀐다’고 하기도 했더라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그분하고 함께 토크쇼에 나가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웃음)” /연합뉴스